

U-러닝 미래형 LCD 전자칠판

www.tyunc.com 031_484_3858

교육연합신문

EY MALL

http://eymall.com

2016년 9월 28일(수) 제 264 호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2-541-2000



연재-신약초에 빠진다

산에서 자라나는 식물에는 건강이 함께 하고 있다. 전라남도 삼악농업협동조합 김형중 조합장이 오랜 기간 연구하면서 준비한 신약초의 이야기와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다.

9면



마산제일여중, 1학년 일일과학체험교실

경남 창원 마산제일여자중학교(교장 심희자)는 지난 22일 경남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일일과학체험교실'에 1학년이 참가했다.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평소 학교수업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과학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과학시연, 천체 별자리 탐험, 과학실험·공작...

13면



시흥시정신건강증진센터 시흥시자살예방센터 16면

얼마 전 대한민국 야구계 한 획을 그었던 하일성 씨가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평소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 대해 여러 추측이 오르내리고 있다. 또한, 그의 마지막 슬슬했던 모습을 담은 유튜브 영상



“오염된 자연환경, 생명을 지키자!”

(사)한국장애인녹색인천시재단, 제1회 인천시청소년환경문화축제를 개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녹색인천시재단(회장 이장환)은 지난 8월 6일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 야외무대에서 제1회 인천시청소년환경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산업폐기물 인체 환경의 파괴와 생태계의 병행이 깨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재앙을 막고자 인천시민과 청소년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목적으로 시행했다. 이날 행사는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글짓기, 표어, 응원 등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담아 완성한 시문, 지열봉사사, 학생들에게 호소문 큰 반응을 이끌어 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청영 교육감을 대신해 박준규 교육국장은 축사에서 “한국장애인녹색인천시재단은 심각해져가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생활쓰레기 투기, 산업쓰레기 무단 투기를 예방, 감시하며 탄소배출 억제 방안으로 나무심기 운동을 벌인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늘 제1회 인천시청소년환경문화축제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전개해 가는 녹색환경봉사활동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이영환 교육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온난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기후변화 기금을 조성하는 GCF 녹색기후기금 체계를 출범시켰고, 2012년 10월 우리 대한민국은 UN 국제기후기금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는 쾌거를 올렸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환경보존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기업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민과 청소년들이 나부터 주변 환경 보존운동에 관심을 갖고 생활쓰레기 억제,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 아주 작은 실천으로부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사)한국장애인녹색인천시재단 이장환 회장은 대회사에서 “대자연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인간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각종 오염물질을 양산해 청정하던 자연환경을 훼손해 급기야 우리 스스로 생명을 위협하게 하는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류는 탄소배출을 억제하고 대자연의 감사를 갚아 인류 대대임을 예방해야 한다는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되며 인천시민과 우리 학생들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환경보존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용성 기자 as@

학교 10곳 중 6곳이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서울은 10곳 중 9곳에 성범죄자 거주, 특히 5명 이상 비율이 60%

전국 초중고 60%의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고 있고, 5명 이상 거주하는 비율도 전국 평균 22%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 시내 초중고 10곳 중 9곳의 학교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본 자료는 201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다. 성범죄자가 없는 학교는 전국 11,814개교 중 4,703개교로 40%를

차지했고, 특히 세종은 71%로 학교 반경 1km내에 성범죄자가 가장 적었고, 전남(69%), 강원(67%), 제주(63%) 순으로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했다. 이에 반해 서울은 성범죄자가 없는 학교 수가 6%(74개) 뿐이었고, 부산 10%(59개교), 대구 12%(63개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가장 많은 1명 이상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94%(1,231교), 부산 90%(562교), 대구 88%(383교), 광주 87%(269교), 인천 79%(405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특히 이번 조사는 학교 1km이내에 초중고가 여러개 소재할 경우 서로 중복되어 통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일수록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높게 확인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은 5명 이상 거주 비율이 60%로 높게 나타났다. 2015년에는 학교 인근 1명 이상 성범죄자 거주자가 59%, 없는 학교가 41%로 2016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등의 대도시도 유사한 경향이

계속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적이다. 매년 학교인근 성범죄자 거주현황을 확인하는데, 매년 수치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의 학교안전예안에서 성범죄자 5명 이상 밀집된 교외권역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지 않고 있고, 교육부-경찰청-여성가족부 간의 유기적 업무연계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이 점을 올해 국정에서는 꼭 개선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유병철 기자 wbc@

재난관리책임기관 20곳 지진대응 체계 점검

중앙부처·지자체 등 매뉴얼 이행여부·추가 여진시 주민안전 대비태세 등 중점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지진관리 책임기관 20여 곳에 대해 “지진대응 실태 긴급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난 12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관련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의 지진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안전감찰실은 28일부터 안전처를 포함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사·공단 등 지진관련 재난관리 책임기관 20여곳의 지진대응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관련 재난관리책

임기관들이 소관 업무에 대해 지진대응 매뉴얼대로 조치했는지 여부, 추가 여진 등 발생 시 빈틈없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이번 지진대응 시 문진표·예보·건시사항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예방·대비 단계에서는 지진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소관 관리시설들에 대한 안전진단 및 지진 대비 작동상태 점검을 시행했는지 살핀다. 대응단계에서는 지진 정보전달과 주민대피, 통제·구조·구급단계에 걸쳐 각 기관별 상황발생 시 현장 작동 상태 여부를 파악한다.

복구단계에서는 지진피해지역의 응급조치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구호물자가 확보돼 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안전처는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은 관련기관에 통보해 담당 시급한 사항은 곧바로 조치하고 지진대응 매뉴얼 및 지진방재대책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처의 지진대응 적정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해 지진 관련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 잘한 지자체 선발해 상 준다

행자부, ‘지방인사혁신대상’ 신설...10개 기관 시상

올해부터 인사혁신처를 통해 주민행복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발굴해 시상하는 ‘지방인사혁신대상’이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인사혁신 운영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지방인사혁신대상’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인사혁신대상’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24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인사제도 운영 혁신과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 공직책임성 확보 등 3개 분야별로 선정한다. 행정부는 다음달 24일까지 기관별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11월 심사위원

회의 1~2차 서면심사를 거쳐 10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말에 “지방인사혁신대상 발표대회”를 열어 외부 인사전문가와 지자체 인사담당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개 기관, 우수상 3개 기관, 장려상 6개 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행정자치부 자체도정정책관은 “지방자치 20년 경험과 자치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래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들을 발굴해서 시상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지방인사혁신대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진피해 학교 긴급복구비 26억원 지원

지진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에 긴급복구비 26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지진으로 학교시설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으로 특별담관 운영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개 학교, 우수상 3개 기관, 장려상 6개 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행정자치부 자체도정정책관은 “지방자치 20년 경험과 자치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래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들을 발굴해서 시상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지방인사혁신대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2016 문학시어터 공동기획 3탄

문학시어터

2016년 8월 31일(수)~9월 4일(일)

평일 7시 30분, 토 3시, 6시, 일 3시

새벽 넘치는 사도 일가의 15강 요점정통 이념 한바탕

색깔콘서트

고금소송

2016년 9월 22일(목)~10월 2일(일)

평일 7시 30분, 토 3시, 6시, 일 3시, 월 심

15세이상 관람가

일반 20,000원 / 단체 10,000원 / 학생, 예술인 5,000원 / 65세이상 무료

문학시어터 (문학평론가 김구림 1루 토크) 예약 및 문의 ☎ 032) 433-3777

주최, 주관 문학시어터 후원 문학평론가 김구림 1루 토크